의정소식

고양시의회,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5차 회의 참석

고양시의회 이길용 의장이 5월 2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특례시의회 공동연구용역 중간보고회와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제5차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특례시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 인사운영 방안과 특례시의회 권한 발굴 추진 로드맵 등 특례시의회 연구용역 현황에 대해 보고받았으며 이어진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에서 특례시의회의 규모와 위상에 부합하는 권한의 발굴 추진 방향과 효율적인 홍보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길용 의장은 "2022년 특례시의회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의장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특례시의회 지위에 맞는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특례시 의장단과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의회, K-바이오 랩허브 유치 전폭 지원

고양시의회(의장 이길용)는 6월 2일 열린 제255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고양시 유치 지원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이 고양 일산테크노밸리에 유치되어 경기북부 신 성장 거점 마련을 통한 경기 남,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고양시가 바이오산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여 미래 자족도시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며 발의되었다.

이길용 의장을 포함한 고양시의원 전원은 "고양시는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도시이자 향후 경기 북부 바이오산업의 거점으로 성장하여 경기도 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곳"이라며 "고양시의회는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동력을 가할 수 있는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이 고양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상식

외식주의보

A형간염을 조심하세요!

최근 5년간 A형간염에 감염된 환자 수는 한 해 평균 6,000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전문가에 따르면 A형간염은 만성 간염은 없으나, 감염된 환자의 15%는 1년까지 지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다고 한다. 아차 하는 사이 감염되기 쉬운 질병, A형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출처. 질병관리청

A형간염이란?

A형간염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먹어 감염되는 급성간염 질환으로, 20~40대가 전체 환자의 70~80%를 차지한다.

A형간염 전파경로

· A형간염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 또는 음식 섭취
· A형간염 환자의 분변을 통한 경구 감염
· 주사기를 통한 감염, 혈액제제를 통한 감염
· 성접촉을 통한 감염

A형간염 전파기간

잠복기	15~50일로, 평균 28일
초기	발열, 두통, 피로감 등 증상 발현
전염	증상 발현 2주 전부터 황달 발생 후 1주까지 바이러스 배출, 다른 사람에게 전염 가능

A형간염 증상

· 고열, 복통
· 권태감, 식욕부진
· 황달
· 암갈색 소변

* 6세 미만의 소아는 무증상이거나 비교적 가벼운 증상이지만, 허약, 비만, 면역력 저하, 저체중 등 영양 장애를 초래

A형간염 예방수칙

· 조개류 익혀 먹기
· 안전한 물 마시기
· 요리 전, 식사 전, 용변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 채소나 과일은 깨끗이 껍질 벗겨 먹기
· 20~40대는 예방접종받기 *1980년 이전 출생자는 항체검사를 하여 접종
· 최근 2주 이내 A형간염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예방접종 받기